



“대혜어록 진중에 계합 않고 투관 안목 없어”

1850년 2월 15일, 강상에 머물던 추사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가보다.

세월에 보낸 초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위안을 삼았던 추사는 벗이 보낸 '초의'를 마시며 추운 겨울을 보냈으리라.

더구나 강상 시절 더욱 불교에 천착한 그는 연경으로부터 <법원주림>을 얻은 후, 연어에 <중경록>백 권을 입수한 기쁨을 초의에게 전했다.

<완당집> <여초의> 33신과 <나가목연첩>에서는 화조절(花朝節)에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가 전해지는데, 화조절(花朝節)은 2월 보름을 말한다. “꽃이 피는 시기”라는 뜻인 담긴 이 연구는 옛 사람들의 정서와 문리(文理), 순화된 심성과 격조를 드러낸다. 2월의 봄바람이 살랑대는 날, 추사가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세월에 보낸 편지는 해가 지났건만 아직도 소매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사이 봄바람이 불어와 이미 2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이란 법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샘물이 졸졸 흐릅니다. 선승(禪誦)을 멈추지 않으실 터이니 단포는 가볍고 편안하신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곧고 무딘 목석(木石)처럼(솔모도 없고, 할 일도 없이) 아직도 강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2월) 12일, 또 계수씨의 상을 당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뚫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난번 <법원주림>을 거의 다 얻었는데 이어서 또 <중경록> 백 권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자인연인데, 한스러운 것은 (초의)그대와 함께 고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 볼만 것은 웅정년간에 종풍이 크게 현창하여 역대 조사의 어록을 고증하여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대혜의 어록은



<나가목연첩> 화조절의 편지

<중경록> 백권 입수한 기쁨 전해 추사 “이것도 하나의 문자 인연” 대혜 수행법에 오류 있음 지적

진중에 계합되지 않고, 투관의 안목이 없다고 여겨 대개 수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종으로 분파되어 문파의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더 간별 하였고, 위로부터 조서가 내려져 천하의 선림에서 봉행 유통시켜서 다른 말이 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동방의 한 귀퉁이)에서는 거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서슴없이 함부로 들어 보이고 함부로 참증하고(妄拈妄參) 있으니 가련하고 연민을 느낄 만합니다. 내가 평소 대혜에 대해 마음으로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이제야 이것으로 실증을 얻게 되었으니 나의 안목도 그릇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멀고 먼 천리 길이라 말로는 (내)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으니 자못 안타깝습니다. 마침 가는 인편이 있어 대략 전합니다. 이만 2월 승려노인

(臘底一書經歲向在裏袖 間春風 已及花朝 流光推遷 法界亦爾歟 木欣泉涓 禪誦不輟 團蒲經安 念念 賤狀一如木石之頑鈍尚留江上 今十二又遭 季嫂喪 情理絕悲 不如不見之爲勝奈何 頃以法苑珠林舉似矣 繼又得宗鏡全部一百卷 是一文字因緣 恨無以與師同證也 且有一事可聞者 雍正年間大暢宗風 考正歷代祖師語錄 如大慧書以未契真宗 無透關眼 不置錄 又以五宗分派爲門戶葛藤 大加揀別 以至自上認論 天下禪林奉行流通 無二辭 東方一隅皆不知有此動 輒妄拈妄參 令人可憐可惡 僕之平日於大慧不亦於心者 今可以得此實證 此眼亦有不誤處耳 千里遙遙 言不盡意 殊爲 適因去羽略申 不具 花朝節 勝蓮老人)

추사는 <법원주림>과 <중경록>을 얻고 “이것도 하나의 문자인연”이라고 했다. 이는 당시 그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곧고 무딘 목석(木石)처럼” 솔모없는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계수씨의 상은 참담한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웅정년간(1723~1735)에 간행된 역대 조사 어록의 편찬과정을 초의에게 알려주어 대혜(1089~1163)의 수행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평소 대혜의 견해에 비판적이었던 추사는 웅정년간에 불서를 간행하면서 “대혜의 어록은 진중에 계합되지 않고, 투관의 안목이 없다고 여겨 대개 수록하지 않았던” 입장을 초의에게 알려주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출재가 지계 철저할때 한국 불교 미래 밝아”

동산반야회 2대 법주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16일 한국불교의 재가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 새로운 의지처가 생겼다. 바로 2대 법주로 법산 스님이 취임한 것.

1982년 ‘청년 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는 일념 하에 출범한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이 지금까지 자리 잡아 온데에는 무진장 스님이 정진적 지주로,故김재일 법사가 안살림을 쟁긴 역할이 컸다. 특히 동산 가족들에게 무진장 스님은 스승이면서도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러한 무진장 스님이 9월 9일 입적하며 한 스님에게 동산 가족을 부탁했다. 바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였다.

호형호제하던 무진장 스님, 신도 교육에 뜻 같아

“무진장 스님과는 오래전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어요. 1980년이었는데 하루는 무진장 스님이 정화회관에서 보자고 해서 갔지요. 일본에서 출간된 10권짜리 <백인록> 2권을 구했다며 보여주는 겁니다. 한질은 지기가 보고, 한질은 내게 주면서 함께 공부하고 이제 호형호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지요. ‘아니 스님, 그 전부터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무진장 스님은 평소 포교분야 중 특히 재가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법산 스님은 무진장 스님과 의기투합해 신도 교육에 뜻을 모았다.

“무진장 스님은 사육이 눈금만큼도 없는 분이셨어요. 이 스님과는 포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지요. 무진장 스님이 포교 원장이던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스님이 ‘나는 조계사 수위도 할 생각 있는데 내가 하자면 할 텐가’ 하시더라고요. ‘스님 하자는 거면 다 합니다’고 대답하니 포교교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포교원을 대표하는 원장과 실무자인 국장 사이였지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교육 방안을 만들 어냈어요.”

당시 법산 스님은 조계종 불교대학 설립안을 기안했다. 1980년 3월이었다. 그 당시 포교원에는 이종익, 김어수, 선진규 등 원력을 지닌 포교사들도 모여 함께 활동했다. 1980년 5월 3주 과정의 교양대학이 출범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불교계에서 교육기관을 만들 었다는 소식은 불교계를 넘어 사회에도 한 줄기 청량 감을 주었다.

불교의 현대적 접근 배우기 위해 대만행 올라

조계종 불교대학의 첫 수료식이 열린 1980년 9월 7일 다음날인 8일, 법산 스님은 대만행에 올랐다. 대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대만에서 6년간 공부하고 귀국했다.

“한국에서의 포교도 중요했지만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산스크리트어를 잘했기에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지만 딱히 스님께서 ‘인도가지 말고 중국으로 알아보라’는 말에 중국어부터 새로 배우며 중국유학을 준비했지요.”

1980년대 대만은 당시 성운 대사의 불광산사 등이 활발히 포교·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법산 스님은 장만도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소개로 헤일강당에 갔다. 주지 여러 스님이 “한국과 중국은 국적만 다를 뿐 신앙은 하나고, 수행 목적이 같다”며 입방을 허가했다. 스님은 헤일강당 회주 <중국선종사>를 저술한 근대 불교학의 석학 인순 스님에게 배웠고, 철학연구소 오경용 박사에게 선학을 배웠다.

“대만에서 느낀 점은 신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교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부분 보다는 신앙심과 교리적인 부분을 알려 줌으로서 체계적 실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시기도는 끝나고 나면 가버리지만 교리교육은 한명의 발심자를 만들거든요. 지혜를 습득하려는 진정한 염원을 가진 한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발심을 이끄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법산 스님은 대만에서의 신도교육의 파급효과를 신도 활동의 예를 들어 소개했다. 대만에서 신도들은 스

스로를 호법신도회라고 부른다. 불법삼 삼보를 보호하고 같이 모신다는 의미다.

“한국불교는 대만불교를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첫째는 스님들이 계율 정신이 투철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신도와 스님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보완적인 책임의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 쩐빵 하나를 먹어도 아재가 들은 빵, 고기가 들은 빵이 있어요. 스님들이 만약 고기가 들은 빵을 먹으려고 하면 쩐빵가게 주인이 ‘스님, 아재가 들은 빵 드셔야죠.’ 하는 겁니다. 술집에서도 스님들이 혹여 들어가려 하면 신도들이 나서서 안 된다고 말해요.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스님,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죠.’ 하며 골프를 권하기도 하니 참 안타깝죠.”

사실 법산 스님이 대만 유학을 갔을 때 머무는 곳과 먹는 것, 그리고 언어의 소통이 가장 실질한 난관이었다. 법산 스님은 중국문화대학 대학원 시절에도 공양 시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고기는 물론이려니와 파와 마늘 등이 들어간 음식을 신도들은 일체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스님들이 채식을 하도록 안내했다.

법산 스님은 대만 스님들도 그런 신도들이 있기에 더욱더 지계의식이 높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만에서 스님들은 신도들이 스승이 되고, 신도들은 스님이 스승이 되는 점이 한국불교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유학서 신도교육 중요성 느껴

대만 최초 한국사찰 흥법원 설립

1985년 대만서 ‘보조선 연구’로 박사 취득

무진장 스님 포교원장시절 실무국장 맡아

보조사상 연구원 등 이끌며 지평 넓혀

2012년 동국대 교수 퇴임후 선방수행 매진

“한국불교를 되돌아보면 신뢰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스님들이 의심될만한 짓을 절대 안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 신도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잘 올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게 됐는지 먼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재가자들도 스님들이 나쁘다고 비방하기 보다는 나쁜 짓을 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계율이란 것은 발을 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입니다.”

귀국 후 동산불교대 출강하며 애정 쏟아

법산 스님이 수학한 인순 스님은 도서출판과 시민도서관을 여는 등 재가자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불교 복지의 대표격인 자재공덕회 설립자인 증엄 스님도 인순 스님의 제자였다. 1981년 12월 대만 최초의 한국사찰인 흥법원을 설립하기도 한 법산 스님은 대만에서도 무진장 스님과의 인연을 더해갔다. 무진장 스님은 81년 흥법원 개원부터 매년 대만을 찾아 교민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문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1985년 6월 중국문화대학에서 ‘보조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6년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임용돼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법산 스님이 대만에 가 있는 기간인 1982년, 무진장 스님은 동산반야회를 만들었다. 무진장 스님의 은사 스님인 동산 스님의 호를 따고 지혜를 구하는 반야의 길을 걷자는 의미였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기초교리를 3개월 씩 직접 가르치셨는데 방학 때 나오면 특별강연을 하고, 무진장 스님이 바쁘면 대신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 뒤에 한

www.shcandle.com

2014 2014 삼 환 양 초

상담문의 031) 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 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1982년 11월 13일 동산반야회 창립법회 당시 사진. 법산 스님은 대만 귀국 이후 무진장 스님을 도와 강연 등을 진행했다.